

곰파 프라하(Gompa Praha) 을 가을 개원

8년간 17억여 원 마련 ... 체코 불교계 랜드마크 세운다 홀레쇼비체 버려진 산업시설 ... 대중 수행·신행 공간으로

체코불교의 중심이 될 매머드 불교센터가 프라하에 들어선다.

프라하 데일리(Prague Daily)는 9일 "홀레쇼비체(Holesovice) 인근 옛 산업 시설이 불교센터로 개조되고 있다"며 "곰파 프라하(Gompa Praha)로 명명된 이 불교센터는 체코불교계의 랜드마크(landmark)로 주목받으며, 명상 수행·불교 강의·불교 전시 등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곰파 조직위원장 이안 마츠키(Jan Matuska, 이하 '이안')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곰파 프라하 조직위 측에 따르면 '곰파 프라하 프로젝트'는 체코불교계가 8년간 준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28,000,000 체코 크라운(약 17억 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했다. 곰파 프라하 조직위는 이 기금으로 낡고 버려진 산업 시설과 관련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 가을 개원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코공화국에는 현재 50여 곳의 불교(혹은 명상) 센터가 개원해 있지만, 소규모

이고 이주민 공동체 중심의 지역불교에 머물러 있다"고 전제한 이안 조직위원장은 "프라하의 역사 이면으로 사라진 옛 산업 시설을 개조, 250여 명이 함께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매머드 불교센터 곰파 프라하를 개원하는 것은 체코불교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지역불교의 골격을 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이와 함께 곰파 프라하 조직위 측은 곰파 프라하를 중심으로 2000평방미터 이내에 산재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도 할 수 있도록 프라하 시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점을 강조하고, 이곳의 산업 시설에서 평생을 보냈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옛 시설의 중요 부분으로 그대로 보존, 상설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불교센터로 향한 일반인들의 발걸음이 늘어나게 되면, 포교의 길도 넓어질 수 있다는 게 이 방침의 배경이다.

"체코불교계는 이렇게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한다"고 전한 이안 조직위원장은 "곰파 프라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



곰파 프라하가 들어선 옛 산업 시설 전경. 그 옆으로 공동주거시설 등이 보인다. 프라하 홀레쇼비체 지역에서는 현재 버려진 산업 시설을 주거·금융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붐이 한창이다.

지고 이야기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 센터가 위치 한 홀레쇼비체에서 문화와 종교생활을 풍요롭게 도움을 주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곰파 프라하 조직위 측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명상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매주 토요일 대중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물론 불교 강의나 불교 음악 등을 들으며 신심을 단련하는 프로그램 등

도 속속 기획할 방침이다.

"곰파 프라하의 불교 시설과 프로그램은 유럽불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추론한 이안 조직위원장은 "이는 체코공화국이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 각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곰파 프라하를 방문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체코불교는 1930년대 초, 주로 지식인층



프라하 소재 티벳불교계 금강불교센터에서 진행되는 대중법회에 동참한 체코 현지 불자들의 모습.

에서 학문적 접근을 하는 차원에서 율트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주의 체제 속에선 뚜렷한 활동이 없다가 구소련 체제가 무너진 1990년대 학문의 영역을 넘어 대중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현재 티벳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의 스리랑카·베트남·일본·한국불교계에서 불교센터와 포교당을 개원·운영하며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트위터 하루만에 삭제

브랜드 피트 중계정 트위터 남겨

할리우드 배우 브랜드 피트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의문의 글을 남겼다가 이 글이 하루만에 삭제돼 각종 의문을 낳고 있다고 1월 8일 AP통신이 전했다.

피트의 게시물이 누구에 의해 삭제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피트가 중국의 티벳 강압 통치를 다룬 지난 1997년 작 '티베트에서의 7년'에 출연할 것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조치를 당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중국 정부가 웨이보 측에 삭제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브랜드 피트의 것으로 확인된 웨이보 계정에 지난 7일 "사실이다. 옴(yep), 내가 간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3만 1000건이나 리트윗되며 급속히 퍼져나갔다. 댓글도 1만 4000개나 달리는 등 중국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줬다. 브랜드 피트의 웨이보 계정을 팔로잉(following)하는 사람 수도 순식간에 1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 글은 8일 오전쯤 사라졌고, 피트의 계정에는 계정만 만들어놓고 아무런 글을 남기지 않은 이들의 경우처럼 "아직 트윗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란 메시지가 올라왔다. 이나은 기자

우명주 박사의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3>



불가촉천민들을 위한 노력과 개종 결심

해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온 암베드카르는 1924년 변호사일을 시작한다. 당시 인도는 정치사회적으로 격동기를 맞고 있었다. 독립운동도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억압받는 계층을 위한 해방활동도 활발했다.

공부를 끝마치기 전에도 불가촉천민을 위한 잡지를 발간해왔던 암베드카르는 귀국한 후 본격적으로 불가촉천민 해방운동에 착수했다. 그 첫 번째는 불가촉천민들이 마을의 공동 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었다. 1923년에 불가촉천민들이 공동 우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층계급 힌두들은 불가촉천민들이 마을의 공동 우물에서 물을 떠가는 것을 막고 있었다. 암베드카르는 이에 항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1500명의 참가자들이 몸바이 근처 마하드 지방의 초다르 저수지로 가서 물을 마셨다. 이 소식이 퍼지자 상위계급 힌두들이 물과 불을 마신 참가자들을 심하게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은 저수지에서 정화의식을 한 후 암베드카르와 그의 지지자들을 고소했고 이후 지역법원은 불가촉천민들이 공동 우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법안을 철회하고 말았다.

이에 암베드카르는 다시 회의를 열고 공개적으로 마누법전을 불태워버렸다. 마누법전은 힌두

교의 전통법전으로서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브라만은 베다를 가르치고 배우며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고 크샤트리아는 인민을 보호하고 보시·제사를 해야 하며 베다 배우는 일을 해야 한다. 바이샤는 가축 기르기, 보시하기, 제사지내기, 장사하기, 토지를 경작하는 일, 베다를 공부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신이 수드라에게 정한 유일한 업은 원랑과 슬픔 없이 다른 세 계급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등의 내

불가촉천민 위한 분리선거구 요구

신분차별 원인은 힌두교...개종선언

용들이 담겨있고 심지어는 "만약 수드라가 베다를 독송하거나 소리를 들으면 그의 귀에 불에 녹인 쇠물을 붓거나 혀를 잘라내야 한다"는 끔찍한 내용도 실려있다.

약 2천년간 힌두들에게 송배받아 온 마누법전을 불태운 것은 불가촉천민을 부조리한 차별에서 해방시키려는 암베드카르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암베드카르는 힌두교를 떠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힌두교 안의 카스트 제도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자 했지만 그것을 힌두교 안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

마누법전 불태워 카스트제도 부조리에 저항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들과 함께 계급해방에 앞장섰다.

고 있었다. 그래서 '평등사회모임'이라는 조직을 결성해 불가촉천민과 다른 카스트간의 식사나 결혼 등을 주선하려는 노력도 했다.

이 당시에 그는 불가촉천민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며 불가촉천민의 정치적 힘을 가지지 못하는 한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불가촉천민들이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불가촉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불가촉천민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불가촉천민만의 분리선거구를 요구

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단식도 불사한 마하트마 간디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여러 경험들을 통해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는 것도 어렵지만 설령 그런 힘을 가졌다고 해도 그들이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문제는 정치적이기보다는 종교적 문제라고 생각하게 됐다. 자신들이 결코 힌두들로부터 동등한 힌두교도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힌두교 내에서 카스트제도로 인한 차별이 결코 철폐될 수 없음을 알고 암베드카르는 마침내 힌두교를 떠

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1935년 10월 13일 암베드카르는 올라에서 열린 집회에서 공식적으로 힌두교를 버리고 개종을 하겠다는 선언을 한다. 그는 "불행하게도 나는 힌두로 태어났다. 그러나 나는 힌두로 죽지 않을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라고 선포했다. 집회에 참석한 만명의 불가촉천민들이 그들에게 평등함을 안겨 줄 종교로 개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때까지도 어떤 종교로 개종을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 선언 이후 그는 왜 자신이 힌두교를 버리고 개종을 하게 된 것인지를 여러 차례에 걸친 연설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힌두교안의 카스트 제도는 어느 인류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한 제도라고 말하며 이런 불평등을 겪은 이유가 힌두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목표는 힌두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힌두교의 테두리를 떠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종교를 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종교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따라서 자신들을 인간으로 대접해주지 않는 종교에 더 이상 머물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불가촉천민들에게 개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렇게 개종을 결심한 그는 그 결정에 대한 상위계급 힌두들의 비난과 싸우며 자신들의 새 종교를 결성하기 위한 오랜 탐색을 시작했다.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보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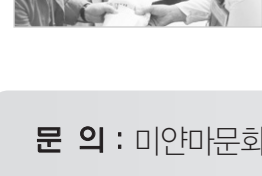
- 신부님 출가일식 지원
신부님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미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